

# 킬러문항 삭제 논란에...불안한 수험생들 “정보 얻자” 복새통

## 2024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최근 '수능 킬러문항 삭제 논란'으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수능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생·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입시 전략'을 세우고자 입시·진로 박람회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5~16일 이틀 동안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년값이면 박람회에 평균 2만여명의 학생·학부모가 방문하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2만 3000여명이 찾아왔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부모 참가자가 늘면서 입시 전략을 소개하는 특강 프로그램이 잇따라 만석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에는 전국 139개 대학이 참가해 191개 부스를 운영했다. 현직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각 부스에서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입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시전형 대입 전략', '입시제도에 따른 진로 진학 설계'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람회 첫 날인 15일 광주시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입시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온 수천명의 학생·학부모로 복새통을 이룬 탓이다.

박람회장에서는 고3 학생뿐 아니라 고1, 고2 학생까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학별 리플렛을 10여 장씩 받아 챙기고 부스에서 입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인기 부스인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대학 입시 상담 부스에는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한 번에 50여명씩 몰려들어 박람회장 한쪽 벽에 길게 줄이

전국 139개대 부스 191개 운영  
“올 수능 어떻게 되나” 관심 폭발  
이틀간 2만3천여명 구름 운집  
고1·고2 학생들도 입시 상담  
정시보다 수시 집중 전략 계획도

어 선 채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박람회장 내 '1대1수시대입 진학상담장' 또한 수십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잇따라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와 대기석 의자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참가자들은 “최근 입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박람회장을 찾아왔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고 3학년 최경희(18)군은 “전남대나 조선대 등 광주권 대학을 목표로 공부 중인데, 수능 성적을 크게 반영하는 학교라 걱정이 크다”며 “킬러문항 논란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만 보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해야 하는 상황이 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입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입시 전략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민경화(여·47)씨는 고려대·한양대 등 수도권 의예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인 자녀를 대신해 박람회에 참석, 수시대입 진학상담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민씨는 “올해 수능은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 전략할거란 말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성적과 변별력을 예측하기 힘든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입시를 치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람회장에는 고3 못지않게 고1·고2 학생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올해 들어 입시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 미리 입시 전략을 잘 세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 고등학생들이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학년도 대입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에서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문정여고 2학년 최수현·정은수(17)양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교 선배들이 유독 ‘혼란스럽다’고 아우성인데, 내년이면 우리 또한 겪게 될 일이라 남 일 같지 않다”며 “당장 올해 수능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입시 정보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내년에는 입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1 자녀와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박유성(54)씨도 “의예과 진학을 노리고 있는 딸이 날마다 ‘수능 때문에 선배들이 맨붕이다’고 하니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겠다”며 “정부 조치가 학원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고, 학생과 학부모들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마당에 부모라도 입시 정보를 확실히 꿰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에게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시험 방식이 급변하더라도 각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은 차분하게 시험을 치러 제 실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재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인 16% 이상을 기록한데다 수능 킬러문항 삭제 논란까지 번지면서 ‘수능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난이도, 변별력 등 이슈에 현혹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대로, EBS 수능 연계 교재와 3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학교장 허가없이 다른 수업 참석한 고교생 광주지법 “생기부 출석 정정 안된다”

학교 교사의 모의고사 참여 지시로 답안 교사에 수업에 빠졌다가 ‘결과’ 처리된 학생 측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학생이 모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답안 교사의 5교시 수업(자율 학습)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담당인 B교사의 권유로 다른 반 학생 6명과 함께 4교시부터 5교시까지 듣기평과 모의고사에 참여했다.

이에 A군의 답안은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생활기록부에 ‘다른 교과 교육활동 참가로 인한 기타 결과’로 기재됐다. ‘결과’는 기타 합당한 사

유에 의한 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과 학부모는 지난해 1월 ‘기타 결과를 출석 인정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수업지도 권한이 있는 B교사의 지시(공권력 행사)를 받아 다른 수업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교사가 강압적, 일방적으로 수업 참여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A군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B교사의 권유로 답안 교사 수업에 불참한 것은 예외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종량제봉투 시신 유기 친모, 아기 살해 자백

생후 6일 된 딸의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버린 친모가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진술을 반복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지난 6일 자수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숨겨 놓아 숨지게 했다”고 진술을 반복했다. 계속해서 우는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차 좀 옮겨줘’ 5m 음주운전...법원 “정직 정당”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에 음주상태로 5m를 운전한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6월 해당 사단으로부터 풀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만 운전해 인적·물적피해도 없는 점, 군인으로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군인은 다른 직군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 가장 가벼운 징계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